



한국의 보물, 해인<13>

(11) 정만인의 능력과 해인을 찾는 과정

해인사에 감추어 둔 해인을 다시 찾아내는 정만인(정만영, 정만용)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도 여러 설화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 가① 중국 상해에 사는 정만영이 해인을 찾아냈다.
- 가②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이 찾아오자 해인을 내주었다.
- 가③ 정만인이 자신을 육군도원수에 임명해 주면 치민(治民)을 잘하겠다고 나라에 요청하여 그 벼슬을 하사받았다. 그 후 해인사를 조사할 일이 있다고 중들을 한 방에 모으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강제적 행위를 통해 해인을 찾았다. 정만인은 장차 계룡산에 도읍할 사립이다.
- 가④ 해인을 나라에 바쳤다. 나라에서는 해인을 해인사에 보관시켰다.
- 가⑤ 숙종(肅宗)의 신하였던 정만영이 해인사를 중창하겠다고 나랏돈을 받아서 조사했다. 해인사 뒷집에서 해인을 찾아낸 정만영이 변신을 해서 지금도 바다에 있는 어느 섬에 살고 있다.
- 가⑥ 지리를 잘 아는 중인 정만용이 어떤 군(君)에게 왕이 날 자리를 써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훗날 왕이 되었다. 신분이 중이니 팔만대장경을 한번 벗겨보고 싶다고 왕에게 말하여 허락을 받아내고 해인을 찾아서 무릉도원으로 도망쳤다. 지금도 정만용은 백 몇 살의 나이로 살아있다. 해인이 나오면 세계통일이 될 것이다.
- 가⑦ 정만인이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결하여 공을 많이 세웠다. 팔만대장경 등서(謄書)를 원한다고 말하고 책궤에서 해인을 찾아내어 한강을 걸어서 건너갔다. 정만인이 해인을 가지고 남해(南海)로 가서 사라졌는데, 언제 가지도 나오지는 못른다.
- 가⑧ 나라를 주물럭거리던 정만영이 나라의 허락을 받고 팔만대장경을 숨겨진 해인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 가⑨ 해인사 주지의 상좌였던 정씨 성을 가진 중이 해인을 훔쳐 도망갔다.
- 가⑩ 정만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서산대사가 일본에 해인 도장을 가지고 가서 조화를 부리는 이야기만 있다.
- 가⑪ 관상을 아주 잘 보던 남산에서 불도(佛道)를 닦는 정만인이 이조(李朝) 말년(末年)에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임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기는 힘이 들겠지만, 장래에 누가 태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쳐줄 수는 있다고 말한다. 삼 년 후에 그때 지목한 사람이 임금이 되었고, 그 대가로 합천 해인사 중창을 나라로부터 허가받았다. 정만인은 해인을 가지고 용국(龍國)에 숨었다.
- 가⑫ 점의 자식인 홍길동이 해인사를 털어먹을 때 팔만대장경 속에서 해인을 찾아서 울도(현재의 독일)로 갔다.



해인사 장경각의 팔만대장경 경판

가⑬ 해인사를 지은 중(道술가)이 해인으로 해인사를 하룻밤에 세웠다는 내용만 있다. 해인을 감추었다거나 나중에 찾아간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

- 나① 사명당이 연적을 가지고 지금도 바다에 있는 지하동에 살아있다. 사명당이 연젠가는 한번 조선을 도와주려 나갈 것이니 부석사를 중창하라고 말했다.
- 나② 율곡 선생이 용왕에게 벼루를 받는 이야기만 있다.
- 나③ 율곡 선생이 용왕에게 벼루를 받는 이야기만 있다.

정만인의 신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③, 가⑤)였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나랏 일을 맡아 해준 인물(가⑦, 가⑧)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만인이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례(가⑥, 가⑨)도 있고, 관상을 잘 보는 불도(佛道)를 닦는 인물(가⑩)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정만인은 나라로부터 벼슬을 하사받거나 나랏돈을 받아내고, 나라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잘 처리했으며, 나라의 일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기도 할 정도로 매우 능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특히 정만인은 왕이 될 자손을 갖게 할 못자리를 잡아줄 정도로 풍수지리에 관한 술법에 밝았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을 정확히 알아맞힐 정도로 관상술에 능했던 인물로도 묘사된다.

이처럼 정만인으로 지칭되는 이인(異人)의 능력은 그 깊이를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롭게 표현된다. 한편 이인이 홍길동이나 사명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화자(話者)가 이들의 유명세를 빌려 자의적으로 정만인을 대신하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12) 비결과의 관련 여부

정만인이라는 이인(異人)이 해인을 가지고 도망갈 것이라는 이야기에 얽힌 비결을 언급하는 설화도 있다. 해인설화 가운데 비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분석해 보자.

- 가⑤ 숙종(肅宗) 때 어떤 신하가 "만인을 잡아 죽여야 나라가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해집니다."라고 상감께 말했다. 이 말에 따라 나라에서 천주교인(天主敎人) 만 명을 잡아 죽였다. 그러자 그 신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만 인이 아니라 정만영이를 잡아 죽이십시오."라고 주장했다.
- 가⑦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장구할 수 있겠나?"라고 임금이 묻자, 정만인이 "살만인(殺萬人)하옵소서."라고 대답했다. 이에 임금이 죄수들을 죽였다.
- 가⑩ 중국에서 직사가 와서 "조선은 만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보화를 잃는다."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 만 명을 죽였다. 실은 정만인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직사의 말을 잘못 해석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는 비결은 모두 정만인이라는 이인을 죽일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비결을 잘못 풀이하여, 천주교도, 죄인, 일반 백성을 만 명이 죽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야기된다.

여기서 숙종대(肅宗代, 1674-1720)라는 설명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신유(1801년), 을해(1815년), 정해(1827년), 기해(1839년), 병오(1846년), 병인(1866년) 박해로 인해 천주교인들이 사학(邪學)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는 후대의 참혹한 사건을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민중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독특한 해석을 내린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만인을 죽여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기도 하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나라의 보화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그리고 가⑦에서는 임금이 직접 정만인에게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정만인이 원래의 비결을 왜곡하여 풀이해 주었다고 이야기된다.

이들 설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운수가 정만인이라는 인물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되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제 정만인은 국가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정만인이 나라의 보물인 해인을 가지고 숨었기 때문에 나라의 운수가 막히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생각도 해인설화에 반영되어 있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자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2】

성경은 인간과 만물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선악과의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듯이,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고 먹으면, 인간은 누구나 탈검중생하여 태초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죽게 된 근본 원인이 비롯되었음을 말하고 정체를 바로 알아야 고, 생로병사의 근원

1. 예수는 선악과의 정체를 몰랐다

<지나호에 이어서>
그런데 욕심이라는 악한 영을 먹었는데 왜 생명체가 되는 몸이 죽게 될까?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게 되는데, 이것은 욕심부리는 순간 생명이 되는 피가 썩어서 위장으로 흐르는 모세혈관을 가로막음으로써 체하게 되고, 이때 엄지손가락의 사관을 침으로 따게 되면 시커멓게 썩은 피가 나오면서 체한 것이 뚫려서 낫게 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할 수 있다.

곧, 나라는 주체 의식에서 비롯된 욕심도 악한 영이요, 욕심이 장성하여 더 큰 죄가 되니 죄도 악한 영이며,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쌓인 죄가 극에 달하면 결국 생명의 피가 썩어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 즉 원죄로부터 유전되어 온 것이니, 인간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인생이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고 죽어갔다.

결국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는 주체 의식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생명과일

인데, 생명과일은 마지막 때 이긴자 구세주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인류는 에타게 구세주 출현을 기다려 왔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악이라 하였다. 사방의 신이 되는 나라는 주체 의식이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치·사회적으로 파벌을 이루고 이권을 다투며, 결국 대량 살상을 하게 되는 전쟁까지도 불러일으켜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니, 이긴자 구세주께서는 나라는 주체 의식이 죄악의 근원이자 사망의 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예수 또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였으나 이 말을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으나,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게 생긴 사방의 신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의 신이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나라는 주체 영으로 들어와 점령해 버린 것이다.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이성의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를 좋아하거나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해와 앞에 나타난 마귀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담과 해와의 눈을 타고 마귀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체영이 되어버리니, 아담과 해와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죄의 종 인간 남녀의 몸이 되어버렸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두루 도는 화염검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 의식이다

아담과 해와의 주체 영이 된 마귀 영이 하나님의 양심을 예워싸고 두루 도는 화염검이 되어 양심대로 살 수 없게 되니, 결국 마귀를 이기는 구세주 이긴자가 나타나기까지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고, 나라는 주체 의식의 마귀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6천 년의 긴긴 세월을 싸워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하기까지는 인본한 말씀을 알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알파오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긴자 구세주가 되어 일곱째 천사로 오셔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인을 때려서, 그동안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밝혀지고 원래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예수는 생명과일의 정체를 몰랐다

생명과일도 영적 과일이다

생명과일 역시 육적인 과일이라면 찾아서 먹으면 될 일이나 아담과 해와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듯이 생명과일의 정체에 대하여 전혀 말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 전하는 것처럼 "보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지는 않으셨고, 쉽게 생명과일을 따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의 과제요, 계시록 2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인류의 마지막 구세주로 오실 이긴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겨 두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듯이, 죽음과 고통이 없는 지상천국의 역사는 선악과가 되는 마귀를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과 만나를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죽음이 없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악과가 영적 과일이라 하였듯이 생명과일 또한 임으로 먹는 육적 과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영적 과일이다. 선악과가 아담과 해와를 죽인 원죄요, 나라는 주체 의식에 지리 잡고 있는 마귀 신이요, 사망의 신이라고 하였으니, 생명과

일은 그 마귀 신이 되는 나라는 주체 의식을 이긴 하나님의 성령이다. 곧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요, 인간의 양심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이 부활하신 영이요, 태초 하나님의 신을 회복하신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슬성신이 생명과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추상적이며 가상의 세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마귀를 이긴자 하나님의 신이 이슬성신이요, 이슬성신이 감추었던 생명과일이다. 만나는 것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이슬성신의 빛을 가지고 오시면,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성경 말씀의 짝을 찾아보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 주리니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요."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성신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의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처럼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저 이긴자는 백합화같이 핀다고 하였다. 백합화는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다. 곧 '구세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이라는 찬송가를 보아 알 수 있고, 새벽별 또한 구세주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마귀를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감추었던 생명과일이요, 만나가 되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서 역사하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이슬성신을 보여주고 먹여주며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기쁨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추앙받아온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 전혀 하나님의 이슬성신의 역사와는 무관한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니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영적 말이란 육적 말이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 자가 없으며, 2천 년이 지나도록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一行 徐輔睦